

POSTECH CEO REVIEW



2014
MAY

목차

교육생 소식		3
5월 온라인 교육 소개		4
우리가 배운 한 가지		5
이 달의 추천	기본과정 3D 온라인 교육 추천	6
	기본과정 1D 온라인 교육 추천	11
	심화 A과정 온라인 교육 추천	17
추천 자료		18



교육생 소식

- ▶ 페이스북 소식 1기 김진영: 수료 후 자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교육생들과 지역별 동문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남겼네요.
- ▶ 페이스북 소식 2기 이재원: 대학생도 되고 교육원 졸업도 하니까 포스텍 교육원 캠프가 그림다~
- ▶ 페이스북 소식 4기 정재민: 학교 매점을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바탕으로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땠을까요?
- ▶ 우리끼리 이야기 5기 양지수: 포스텍과제하라 경시공부하라 입시준비하라... ㅎㅎ ππ 시험기간에는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시험성적은...(쩍) 하지만 다 완성된 과제물을 보고 나면 왠지 뿌듯...^^ 저는 서식정리&레이아웃&디자인에 과제시간의 1/3을 쏟아붓는 바보랍니다...ㅋㅋㅋ
- ▶ 우리끼리 이야기 1기 김광현: 안녕하세요...! Postech 영재기업인교육원 1기 수료생 김광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는 '지구별 꿈도전단'을 '미국의 사회적기업 탐방'이라는 주제로 신청하려 합니다. 그러던 중, 기업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계신 여러분들의 설문조사 자료가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길지 않은 설문이니, 잠시만 시간을 내 참여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우리끼리 이야기 5기 박단비: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당!! 저도 초반에 페북에서 5기 그룹 못찾아서 헤맸었는데 5기 동기분들도 못찾으실까 봐 이렇게 사이트 주소 올려요~^_^ 5기 동기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세요!! ㅎㅎ <https://www.facebook.com/#!/groups/632685443447188/>
- ▶ 올 해 교육원 모교방문 홍보대사를 선발했는데요, 모교방문을 첫 번째로 다녀 온 교육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화여중 출신의 교육생들입니다. 이제는 자랑스러운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선배로서 교육원을 열심히 소개해주었네요. 1기 김지혜 학생의 블로그에서 그 소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jehye9585/50193839873>)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POSTECH CEO REVIEW는 교육생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사진이나 근황, 소식을 교육원으로 보내주세요.

- 1) 셀카가 너무 잘 나왔나요? 차마 공개하지 못했던 캠프 사진이 있나요? POSTECH CEO REVIEW 첫 페이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 2) 거창한 소식이 아니더라도(거창하면 당연히) 전학이나 여행 등 소소한 근황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 3) 칭찬해 주고 싶은 친구가 있거나, 하고 싶었지만 전하지 못한 말도(고백 사절) 보내주세요.

보낼 곳: 교육원 이메일 (postechceo@gmail.com)

5월 온라인 교육

5월에 진행되는 4기 온라인 교육은 고객의 소리, 지식지도 점검입니다. 고객의 소리는 고객 훑쳐보기를 통해 발견했던 고객들의 불편함과 개선사항을 직접 편지로 작성하여 건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지식지도 점검을 통해 여러분이 학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중간점검 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5기 교육생은 '존재의 이유'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 제품이 어떠한 목적으로 존재하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5기 또한 지식지도계획에서 세

웠던 목표와 계획들을 점검해 봅시다.

4월에 선발된 심화과정 교육생은 2회차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먼저 1년 동안 진행할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제품 진화로드맵을 작성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마법과 같은 믿음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시간! '나를 향한 믿음'이라는 프로그램도 기대해주세요.

과정	기수	분류	프로그램	과제기한
기본	4기	필수	[경험프로젝트] 고객의 소리	5월 25일(일)
		선택	[학습계획] 지식지도 점검	
	5기	필수	[경험프로젝트] 존재의 이유	
		선택	[학습계획] 지식지도 점검	
심화	2,3기	필수	[지식프로젝트] 제품 진화 로드맵 [역량프로젝트] 나를 향한 믿음	5월 27일(화)

우리가 배운 한 가지

온라인 과제에서는 항상 과제 마지막에 자신이 가장 인상 깊었던 교육 내용 한 가지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배운 한 가지'입니다.

지난 달 온라인 교육 중 교육생들이 뽑은 한 가지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기 권유진

기술기반기업이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을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았고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했다. 좀 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이 진정한 기업가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5기 신영

내가 나의 삶을 살며 가치관에 대해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은 누군가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5기 장재우

기업의 가치관이 기업의 흥행을 좌우한다. 훌륭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기술과 홍보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일관된 가치관을 지녀야 한다. 기술기반 사업은 현재의 뜨거운 감자다. 기업가, 즉 모험 정신을 가진 사업가는 위험 부담이 따르더라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패스트 무버가 되어야 한다.

5기 정혜인

이 세상에 다른 생각은 있어도 틀린 생각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스펙은 나의 흥미이자 적성을 찾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단지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것이 아닌 그와 함께 어울리는 환경, 가치들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되었다.

5기 황영웅

평소 가치관에 대해서 말해보라 또는 생각해보라고 하면 보통은 막연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 가치관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렵고 멀게 느껴졌었지만 이번 학습을 통해서 가치관이란 무엇인가, 나의 가치관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또한 보충자료들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가치관 또한 알 수 있었던 것이 매우 인상 깊었다.

4기 권오익

사업환경이 기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 있었고 특히 자신의 아이디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작은 아이디어공모전의 경우를 대입하여 그때 나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4기 김지호

고객의 힘, 사업에 위협을 주는 요소 등을 생각해보는 것에서 정말 내가 기업에 대해서 배우고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였다.

4기 김태형

사업은 일종의 카멜레온이다. 카멜레온을 살펴보면 자신이 놓인 환경이나 처지에 따라 모든 것들이 변한다. 천적이 나타나면 나무에 올라가 나무의 껍질과 같은 밤색의 피부색을 띄어 천적의 시야에서 벗어난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때로는 감출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과감히 나서는 그러한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모든 세세한 디테일들이 모이고 모여 중요한 결과를 내 비추는 것 같다.

4기 박연제

과제를 하면서 사업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지만, 또 잘못 해석하면 이것에 얽매어서 "환경이 이래서 안 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기보다는 항상 이런 변화를 조사하고 그 환경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 대비하여 경영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또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대비를 위한 방법의 하나인 시스템적 사고의 중요성 또한 이번 학습을 통해 알 수 있었다

4기 전영준

이제 기업이 제품을 성공하게 하는 시대는 지났다. 주변 사회의 시스템의 구조를 이해하며 지금 경쟁의 상대가 누군지 고객이 누군지 어떤 시장에 진출을 해야 하는지 파악하여 그 흐름을 타고가야 제품을 성공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배웠다. 그에 필요한 것은 시스템적 사고와 사업환경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심화A 2기 김해수

기업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치 창출'이. 그 가치란 금전적인 것일 수도, 아니면 상징적인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금전적 가치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기업은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할 수는 있겠지만 '비전'이라는 중심 목표, 핵심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게 된다

심화A 3기 양준하

비전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내 꿈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워낙 평소에도 계속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냥 한번 정리해보는 느낌이었다. 하버드 이야기는 사실인진 모르겠지만 자극적인 내용 이었고 확실한 꿈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그리고 '비전' 이란게 어떤 세상이 펼쳐지길 원하는지에 대한 희망이란것은 생각해보기 못했는데 좋은 표현방법인가 같다.

심화A 3기 유병호

비전은 단순한 목표를 넘어선 자신의 꿈과 이상이 담긴 메시지이며 꿈은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담은 그릇이다

심화A 2기 김민수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상들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이케아 창업자 캄프라드의 경영철학)

심화A 3기 유지인

관심 기능, 기술, 제품 중 어떠한 것을 우선으로 선정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이 뚜렷한 것이 중요하다.

이 달의 추천

지식지도 계획

과정	기본과정
교육	3D: Develop the Future
선정자	4기 김도영, 박준혁

4기 김도영

지식지도 계획

p04012 김도영

2014년 목표

1. 국/영/수/물/화/생/지 올 1등급
2. 과학 동아리 활동 부장으로써 잘 이끌어가기
3. 뇌에 대한 탐구활동 완수하기

포스텍영재기입인교육원 항목

- (1). 3/28(수) 버거킹에서 교재 1~2명 선정, '교재 출처보기' 과제 수행 위한 자료 수집
- (2). 3/28(수) 11시~ '교재 출처보기' 과제 보고 완료
- (3). 3/29(토) 까지 오픈북 도서 'The Chance' 완독
- (4). 3/30(일) 오픈북 주제별 토의 작성 완료, 업로드
- (5). 4/8(일) 중 올라온 다른 교육생 작성 오픈북에 글 남기기
- (6). 5/10(토) 까지 기업에게 보내는 편지 작성 완료(교재의 소리)
- (7). 5/14(수) 까지 보정 포함해서 발송하는 과정
- (8). 5/18(일) 까지 답장(선택) 포함해 편지문 보고 완료
- (9). 5/18(일) '사업 환경 분석2' '내가 배운 한 가지' 작성 완료
- (10). 5/24(토)~25(일) '선정제품, 산업, 주요기업 및 제품' '5-forces분석', 'STEEP분석' 작성 완료

학업 항목

- (1). 3/23(일) 까지 국영수물화생지 범주화 완료
- (2). 3/30(일) 까지 모든 과목 1번 완전 정리 완료
- (3). 3/28(수) 까지 Black Label/모의고사 2차 오답
- (4). 3/24(월) 까지 물리 수능특강 오답
- (5). 3/28(금) 까지 화학 수능특강 2단원 까지 풀이
- (6). 4/5(토) 까지 전 과목 2번 완독

경험 항목

- (1). 3/23(일) 제 6회 뇌과학 심포지엄 감상문 등 포브폴리오 자료 제작하기
- (2). 3/24(월) 포스텍영재기입인 관련 담임선생님과 상담
- (3). 4/5(토) 서울대 생명과학부 체험, 당일 포브폴리오 자료 제작
- (4). 5/8(목) 'SNU ON' 공개 강과 '뇌의 신비' 감상 및 포브폴리오 자료 제작
- (5). 6/14(토) 열린 연단 제 21강 '신경 과학의 이해' 청취 및 포브폴리오 자료 제작
- (6). 6/21(토) 열린 연단 제 22강 '생물학, 진화론, 인간 이해' 포브폴리오 자료 제작
- (7). 5/8(목) 까지 적어도 2권의 뇌과학 도서 완독
- (8). 5/9(금) 까지 뇌과학 도서 갖게스트 리뷰 계획 수립
- (9). 5/11(일) 까지 1회분 녹화 및 서버 업로드
- (10). 5/18(금) 이전에 정규 방송 시작
- (11). 3/30(일) 1차 진로 특화감상문 제출 완료

4기 박준혁

2014년 봄학기 주요 목표:

1. 5월 8일 중간고사 내신 1등급씩 올리기
2. 5월 8일 중간고사 전까지 컴퓨터, 핸드폰을 충동적으로 사용한 시간 10시간 이내로 만들기.
3. 포스텍영재기입인 교육원 필수, 선택과제 모두 제출기한 준수해서 올글하기

<포스텍 영재기입인 교육원>

1. 선택, 필수과제 모두 제출기한 준수해서 올글하기
2. 이달의 추천과제 1번 이상 받기
3. 최소 일주일 전에 과제 시작하기
4. 커뮤니티 활동 3번 이상하기

<학업>

1. 5월 8일 중간고사 내신 1등급씩 올리기
2. 5월 8일 중간고사 전까지 컴퓨터, 핸드폰을 충동적으로 사용한 시간 10시간 이내로 만들기.
3. 5월 8일 중간고사까지 학습반장으로써 수업시간에 자지않고 학습분위기 주도하기.
(+ 수업시간에 자지않고 졸릴 때 애플 워치로 수업시간에 자는 애플 웨치기 잡담이 10마디 이상 넘어갈 때 조용히 시키기)
4. 5월 8일 중간고사 전까지 wordpot 수능편 하루에 1단원씩 읽기하기
5. 5월 8일 중간고사 전까지 수능기출 플러스 수1, 수2 다풀고 중간고사 치기

<경험>

1. TEDxYG 주제 생각 2시간이상해서 발표준비하는 데 5시간이상 투자하기
2. 여름방학전에 스카이다이빙하는곳, 같이 할 친구, 비용 다 조사해서 방학때 바로 할수있게 준비하기

<대외>

1. 다상량 1학기부문 준비하기 (3월 4월 분량 쓰기)
2. 1인 2과제 팀하고 주제 생각하기 (연구계획서 제출 3월 말까지)
3. 한화사이언스 플랜지 2014 3월 (1인2과제 주제 수준 봐서 선정하기)

<강학금>

현재 조사한 장학금 목록:

서울 학술장학재단 4~5월 선발
선암장학생 11월 - 2학기 8월
서산인재육성재단 6월
삼금문화장학재단 5월 11월
열린장학금 9월
대한민국 인재상 6월
연말까지 2개이상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조사하고 준비하기.

• 기한이 명시되어있지않은 목표는 모두
5월 30일 지정까지 임

이 달의 추천

사업 환경 분석1

과정 기본과정

교육 3D: Develop the Future

선정자 4기 류지연, 이재민, 바수혜나, 최주해

4기 류지연

사업환경이 기업경영에 영향을 준 사례

3. 밥 대신 가공식품

- 해마다 쌀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현재 1인당 67kg으로 1970년의 절반 수준
- 과식을 우려해 밥을 조금 먹거나 빵을 대신 먹는 사회 문화적 배경도 일조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쌀 소비를 늘리자는 프로젝트 진행
- 쌀을 이용한 냉동밥 등 가공식품 개발과 판매가 활성화:
컵밥, 밥버거 등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한 간편 쌀 요리
- 쌀 소비 증가 캠페인이라는 사업환경을 분석, 이용한 경영전략

4기 바수혜나

03 라이벌(kakao talk) > 라인(Line)

2011년, 네이버는 '네이버톡'이라는 메신저 서비스를 만들었다. 하지만 네이버톡은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고 2012년 3월에 결국 서비스를 종료하고 만다. 2011년 6월, 네이버는 다시 [Line]이라는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때는 이미 카카오톡이 한국 스마트폰 메신저서비스 시장을 꽉 잡고있을 때라서 라인은 결국 한국시장을 카를 밀쳐내며 비집고 들어오지 못한다. 이에 NHN은 해외로 눈길을 돌려 일본과 태국,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권에 진출하고, 그 결과 일본과 태국의 국민 메신저가 되었다.

나는 이처럼 같은 서비스의 막강한 라이벌이 있다면, 그 사업환경을 미리 분석하고 새로운 시장을 찾거나 그 라이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기업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4기 이재민

사업환경이 경영에 영향을 준 사례

• 시계업계

- 근 6년 사이에 전 세계에 스마트폰 열풍이 불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스마트폰 시장의 확장이 예상치 못한 다른 시장을 죽이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시계업계이다. 스마트폰의 시계는 화면을 켜 때마다 편리하게 시간을 알려주며 일일이 보정할 필요나 오차의 염려가 없는데다 우리가 매일 보는 화면 어디에나 표시되기 때문에 손목시계나 벽시계에 붙어있던 시선이 스마트폰으로 집중되고 있다. 덕분에 한때 고급 시계로 명성을 떨쳤던 스위스 등지의 시계 시장이 몰락해가고 있다.
-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시계 업체들은 브랜드를 동떨어하고 고급화 경향을 띄고 있지만 넘쳐나는 스마트폰 사용자들과 고급화에 의한 소비자층 한정화는 시장에 위협만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4기 최주해

1. 사업환경이 기업경영에 영향을 준 사례

1) 1인가구를 위한 셰어하우스

최근 1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증금 문제, 집의 형편없는 생활 공간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학생들도 비싸도 좋지 않은 환경의 자취방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woozoo'라는 기업이 등장했다. 새로운 주거문화를 만들고, 함께 하는 집인 셰어하우스를 통해 삶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기업은 현재 11호의 셰어하우스가 있으며 각 지점별로 '창업인들의 집' '디저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집' 등 공통된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로 모여 산다.

이러한 사업환경이 사회적 기업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 같다. 최근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기업이 많은데, 사회적 기업의 등장으로 인해 기업들도 단순히 자신들만의 이익을 벌기 위한 전략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



이 달의 추천

고객 홈쳐보기

과정	기본과정
교육	3D: Develop the Future
선정자	4기 박근우, 주정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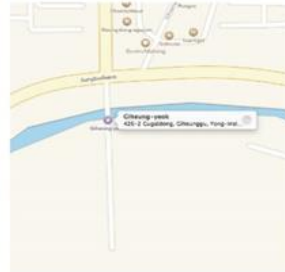
4기 박근우

고객 홈쳐보기

기흥역

장소

분당선 기흥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227 (사진은 수원방면을 촬영한 것이지만, 분당방면을 관찰함.)

시간

오전 8:50~9:13(23분간)

조사방법

- 2인 줄임구에서 분당방면 게이트까지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여 관찰함
- 조사 대상과는 약 10m의 거리를 두고 추적(나이대는 모두 추정치임)
- 다양한 시뮬을 추적하기 위해 23분간 관찰함

고객 동적보기

2

4기 주정환

고객 홈쳐보기

- 고객을 자세히 관찰하여 고객의 행동을 파악 -

POSTECH 영재기업인교육원 4기 주정환

1. 결과보고서

1) 관찰 장소 및 대상 선정

1. 관찰 장소 선정



2. 관찰 대상 선정

-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고객 (계산대에 줄을 설 때부터 빠져나올 때까지)

2) 고객 홈쳐보기

1. 첫 번째 고객 - 50대 후반의 여성

- 오후 3시 13분경 계산대에 줄 서기 시작
- 카트를 이용하지 않고 비닐 봉투를 이용
- 오후 3시 15분경 물품 계산 시작
- 계산 중 화초를 구입하였으나 마땅히 담을 공간 부족
- 일반 비닐봉투(장바구니)에 억지로 끼워 넣음
- 계산을 완료한 후 물품을 회수
- 회수하는 시간에 뒤의 고객 계산 시작
- 서둘러 물품을 담았으나 일부 물품이 섞이는 등 혼란 발생
- 오후 3시 20분경 물품을 모두 계산 후 계산대를 빠져나옴

2. 두 번째 고객 - 3살 정도의 아기가 있는 20대 후반의 부부

- 오후 3시 26분경 계산대 줄 서는 과정에서 갈등
- 계산대 결정하고 계산대에 물품을 올림
- 물품을 올린 후 시식 후 남은 스레기를 카드의 아기가 건드림
- 부부가 그것을 제지하고 스레기를 처리하려 남편 쪽이 이동
- 물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앞의 고객의 물품과 겹쳐 혼란이 발생
- 물품을 모두 계산하고 결제하기 위해 카드가 필요했으나 남편 쪽이 카드를 갖고 있음
- 남편이 아기를 카트에 남겨놓고 뛰어와 카드를 건네준 후, 다시 카트에 서둘러 뛰어감
- 오후 3시 30분경 계산을 마친 물품을 카트에 싣고 오후 3시 32분경 계산대를 빠져나옴

이 달의 추천

고객 흠쳐보기

과정	기본과정
교육	3D: Develop the Future
선정자	4기 유진희, 이유경

4기 유진희

1. 고객 흠쳐보기
 - ① 직장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들어옴.
 - ② 들어오자마자 식빵을 들고 계산대로 가서 카드를 주고 빨리 계산을 하고 빵을 잘라달라고 부탁함.
 - ③ 카드로 결제를 하고 카드와 영수증을 받음. 전화를 받으면서 카드는 주머니에 넣고 영수증을 버려달라고 부탁함.
 - ④ 직원이 영수증을 구겨서 계산대 옆에 그냥 둠.
 - ⑤ 남성이 영수증을 계속 바라보자 직원이 쓰레기통에 버림.
 - ⑥ 전화를 끊고 빵을 빨리 잘라주기를 재촉함.
 - ⑦ 빵을 들고 다시 전화를 받으며 황급히 밖으로 나감.

2. 불편사항

- 영수증을 버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영수증을 받은 직원이 영수증을 그냥 아무렇게나 구겨서 옆에 두는 것을 본 남성이 그 영수증을 계속 바라본 것으로 짐작하였을 때 직원이 자신의 영수증을 제대로 버리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졌음을 알 수 있음
- 잘라놓은 식빵이 다 팔렸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고객이 잘리지 않는 식빵을 들고 와서 잘라달라고 요구하도록 함. 고객이 매우 바쁜 상황에서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음.

4기 이유경

♥ 고객 2 불편사항 파악

- 카운터로 가던 중 바닥에 쌓여 있던 책을 발로 차 쓰러짐

자습서를 품에 안고 핸드폰을 하며 카운터 쪽으로 걸어 가다가 바닥에 쌓여있던 책을 못 보고 발로 찰. 책이 쏟아지면서 표지가 접히는 책이 생김.



이 달의 추천

기업과 환경1

과정	기본과정
교육	3D: Develop the Future
선정자	4기 강수지, 루세현, 바수헤나, 이수나, 박준혁, 이재민, 박연제

오픈톡

4기 루세현

The Change에서 기술 된 메가트렌드인 인구구조, 도시화, 기후 변화 중 나의 관심기술분야인 IT와 관련이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나는 식상하지만 모두 다 관련이 있다고 대답을 하고 싶다. 하지만 이 식상한 대답이 기업을 신중하게 이끌어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된다. 첫째로 인구구조와의 관련에 대하여 나의 생각을 기술하여 보겠다. 책에서 제시한 현재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 고령화 현상을 예로 들어 연관관계를 상상해보겠다. 일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됨으로써 기업은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노인 분들을 주 소비 타겟으로 잡은 실버 제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노인 분들은 건강이 좋지 않으므로 실시간으로 건강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헬스케어와 IT의 접목 상품이 나올 수도 있고, 노인 분들은 관절 등이 약하시므로 행동 패턴들을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능동적인 판단을 하는 인공지능 인터페이스가 구축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의미로 고령화란 생산하는 연령대가 적어지는 현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 보다 더욱 노동력을 구하기 힘들어 질 것이고, 이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하고, 생산의 효율이 감소하게 되어서 제품의 가격에 소크가 오게 될 수도 있다. (중략)

나는 기업을 카멜레온에 비유하고 싶다. 카멜레온은 변화하는 환경의 색깔에 따라서 자신의 몸의 색을 알맞게 변화시켜서 포식자에게 들켜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업에게 주어진 환경은 계속하여 변화한다. 기업은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기업의 미래 방향, 비전을 알맞게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소비시장이라는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만약 메가트렌드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잘 못 변화한다면 색을 잘 못 바꾼 카멜레온과 같이 낙오되고 말 것이다. 정리하자면, 기업가에게 주어진 환경에서의 메가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여 기업을 변화시키는 역량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만약 빠르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 기업은 시대 속으로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생각된다.

4기 바수헤나

나의 관심분야는 '교육'으로, 이번 오픈톡에서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메가트렌드가 나의 관심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현대의 인구구조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또 1~2인가구로 변화하였다. 이는 부양해야 할 가족, 즉 생계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고 나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늘어났다는 뜻이다.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늘어난다면 사람은 자기 계발을 위한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는 지식 함양 또는 단

순한 취미로서의 배움이 될 수도 있다. 아직 현대 사회의 기성세대들에게 취미활동이나 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은 다소 먼 얘기일 수 있지만, 그 다음세대 혹은 다다음세대 쯤에는 부양해야 할 사람들의 수가 줄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더욱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더욱 자유롭게 제 2외국어, 미술, 음악 등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인구변화라는 메가트렌드에 의해 교육은 지금처럼 입시에만 치우친 것이 아닌, 직장인을 위한 주말 예체능교육 또는 제 2외국어 교육등의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교육에 있어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의 감소는 일부 학교의 폐교와 교사 자리의 부족 등의 문제를 가져오지만, 적은 학생 수인 만큼 맞춤형 수업, 학생 개개인에 더욱 집중하여 기존의 공교육보다 더 학습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중략)

4기 이수나

나는 이때까지 여러가지 변화를 겪어왔지만, 현재 관심분야는 적정기술로 설정하였다. 사실 적정기술은 여러가지 기술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창출해내는 기술이기에 특정 분야를 정할 수 없을 뿐더러 정의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생기기도 한다. 나는 그래도 적정기술에 대해서 가장 크게 작용할 메가트렌드는 바로 '기후 변화'라고 생각한다. 물론 적정기술이 도시에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이긴 하지만, 적정기술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바로 소외된 계층 구제이고 그 소외된 계층에게 인구구조 변화, 즉 핵가족의 증가와 도시화는 상대적으로 더 적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는 이전부터 많은 이슈의 중심이 되었고 한 사회의 큰 변화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열대화, 해수면 증가 모두가 포괄적으로 기후 변화에 속한다. 이에 대해서 저자는 기후 변화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도출할 것이라고 서술했었는데, 적정기술에서 이미 재생에너지를 도입한 제품들이 여러가지 창출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기후 변화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중략)

4기 강수지

일전 2D 오픈톡 과제에서 '기술과 사회의 평행선'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The Change"를 읽고 난 지금, 그것을 변형하여 강조해보고자 한다. 더 체인지의 저자 김재윤은 3대 메가트렌드를 더 붙여 여섯 가지 유망 사업을 제시하며 미래 사회 변화 흐름을 따라 신 사업이 창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이를 "사회적 트렌드"와 "사업의 평행선"이라 정의해보겠다. 3대 메가트렌드 중 '기후 변화'로 예를 들어보자. 기후 변화의 원인 중 하나인

탄소 배출의 가장 큰 이유로 화석 연료의 사용이 꼽히면서 사람들은 신 재생 에너지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또한 자원 고갈로 인한 경제적 문제도 그 주목의 원인에 해당되었다. 앞으로 그 주목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를 사업에 활용한다면 어떤 결과가 창출될까? 기후 변화로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관념이 대중들에게 입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 재생 에너지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중략)

오픈마인드

4기 박준혁

이전 오픈톡 과제와 연관되어 생각한 것에 대해 굉장히 신선하고 모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평행선이라는 말이 이번 책의 의미를 표현하는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지학생이 말한 것과 같지만 다소 덧붙이자면, 평행선이라는 것은 수학적인 의미 그대로 기울기가 같은, 즉 방향성이 같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의 트렌드의 방향성을 안다면,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또한 알 수 있다는 말 이겠조.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지만 '평행선'이라는 표현이 매우 적절한 것 같아 다시 강조하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다만 안타까운건 기후변화같은 전지구적 문제를 예시로 들기보다는 좀더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기업의 입장에서 적용된 예시를 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중략)

4기 이재민

제가 느꼈던 부분보다는 꽤 많은 부분을 느꼈네요. 특히 세가지의 트렌드를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게 인상깊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작성했던 내용들도 살펴보면 결국 항공운송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 집단의 변화와 세계 시장을 내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주가 되었다는 것을 통해 인간중심의 시장 통찰력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4기 박연제

사실 교육의 본질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식 등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의 수가 줄어들 만큼 개개인에게 좀 더 신경 쓸 시간도 늘어나는 등의 맞춤형 수업에는 유리하겠지만 먼 미래에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변화로 생계의 부담이 없어 발생하는 일지리의 변화로 공부 또한 자칫 소홀해져 인류에 대한 악순환이 시작되지는 않을까도 싶네요. (중략)

이 달의 추천

지식지도 계획

과정 기본과정

교육 1D: Dream the Future

선정자 5기 박종덕, 황희수

5기 박종덕

ID 온라인 교육 - 지식 지도 계획서

2014학년 봄 학기 목표	1.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잘 하고, 나의 가치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자. 2. 학습계획서에 맞추어 학습하자. 3. I'm Possible List 계획 있게 실행에 옮기자.			
항 목	내 용	기 간	수정장점 (O, X)	마무리 (O, X)
포스텍 영재기업인 교육원	지식지도계획 작성(1차) & I'm Possible List	3/3 ~ 3/20		
	나를 찾는 여행 I 변하는 것 VS 변하지 않는 것 기업과 비전 I	3/10 ~ 4/12		
	존재의 이유 지식지도 계획서 점검 및 수정 체크(2차)	4/14 ~ 5/24		
	나를 찾는 여행 II 기업과 비전 II	4/14 ~ 6/7		
	나를 찾는 여행 III 기업과 비전 III 지식지도 계획서 마무리(3차)	6/9 ~ 7/19		
	I'm Possible Report 봄 학기 마무리	3/24 ~ 7/19 7/21 ~ 7/27		
학 업	내 용	기 간	수정장점 (O, X)	마무리 (O, X)
	중학교 과정 마무리 영어 읽기 읽고, 독해 실력 향상 수학, 과학 중학교 심화과정 마무리 및 고등과정 EBS 강의듣기	~ 현재 진행형		
경 령	내 용	기 간	수정장점 (O, X)	마무리 (O, X)
	전기 생산 프로젝트 - 자가발전 전기 생산기계 제작하기	3/24 ~ 4/5		
	천문경적 뒷받 가꾸고, 기본 식물을 활용해 불 없이 조려해 보기 → 관찰일지 작성하기 (주 1 회)	3/24 ~ 7/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해 & 간단한 프로그램 제작하기	4/1 ~ 6/30		
	영화 속의 과학을 재해 - 실현 가능하도록 작품 만들어 보기 낚시 도전에 보기	4/14 ~ 4/20 6월 ~ 7월 주말 활용		
자격 및 수상	내 용	기 간	수정장점 (O, X)	마무리 (O, X)
	전국 발명대회에서 입상 전국 과학관 대회에서 입상	4월 ~		
기 타	내 용	기 간	수정장점 (O, X)	마무리 (O, X)
	수학, 과학, 발명 전문서적(잡지포함) 읽기 TED, 네이버 캐스트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해내기	~ 현재 진행형		

5기 황희수

2014년 학습목표 및 계획추진

5기 황희수

2014년 봄 학기 추진목표	나의 관심분야 탐구와 기업가로서의 마인드 배우기	
1. 실천행목	1. 기술기반 기업인이 되기 위한 관심분야를 찾아본다. 2. 최근까지 가장 관심 있는 환경과 생명공학 분야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고 연구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분야를 알아본다. 3. 자기주도 학습을 좀 더 구체화하고 계획세우기를 훈련해 보면서 시간의 효율적 사용을 모색해본다.	
세부 실행계획 항목	내용(우선순위 순서)	추진일정(목표)
포스텍 영재기업인 교육원	① 봄 학기 동안의 학습계획 세워보기	2014.03.15
	② 도전정신을 키우기 위한 나 만의 리스트 만들기	2014.03.15
	③ 나의 적성 및 관심분야를 탐구한다.	2014.03.30
	④ 기술기반 기업인의 대해 자 세한 정보를 알아본다.	2014.03.30
	⑤ 과거·현재·미래의 생활패 턴의 변화를 알아보고 예측 해본다.	2014.03.30
	⑥ 기업가의 마인드를 알아보 고, 책 등을 활용하여 구체 적으로 접근 해본다.	2014.04.07
학업	⑦ 계획한 일에 대한 실천 및 반성을 통해 나를 다지고 나의 관심분야와 꿈을 정해 본다.	2014.07.10
	① 3월→학급원칙자치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하기	2014.03.30~03.30
	② 과학의 달 참여와 봉사활동 참여하기	2014.04.01~04.30
	③ 음악경연대회, 각종 글짓기 대회, 수학경시대회 등 참가	2014.05.01~05.31
	④ 평화통일글짓기 전국대회참 여 및 진로체험학습, 봉사활 동 참여	2014.06.01~06.30
	⑤ 지질평가 및 각종교내 및 교외활동 참여하기, 봉사활 동 참여 및 교육청 영재교 육원 보고서 중간 점검	2014.07.01~07.25

이 달의 추천

지식지도 계획

과정 기본과정

교육 1D: Dream the Future

선정자 5기 노승수, 이원재

5기 노승수

과제 작성 후기



- 구체적으로 계획표를 작성하고 나니 현실적인 목표와 계획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 지인들과 가족들의 한 줄 메시지를 듣고 읽으니 목표에 대한 희망이나 의지를 심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
- 이론 목표의 목록을 작성하며 계획을 이루는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가면 더 의미깊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 아울러 내가 이뤄야 할 목표가 생각보다 많으니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5기 이원재

항목	내용(우선순위 순서)	목표기한
경험	금요일의 과학터치 강연 참가	2014.13~12.30
	동아리 활동 (사진 및 미디어영상부)	2014. 6~7.30
	세계환경 프로젝트 (보고서) 작성	2014.8~10.30
	음향기기 청음 체험하기	2014.4.13~ 12.30
	한일고 입학설명회 참가 및 진학 준비	2014.8~12.30
자격 및 수상	공인 영어 성적 취득	2014.5.20~11.30
	수학 경시 대회 및 인증시험 수상	2014.3.29~10
	발명대회 및 LG생활과학 아이디어대회 참가	2014.9~10
	한국사 능력 인증 시험 중급 도전	2014.5.24~11.11
	경제 경시(주니어 태셋) 대회 도전	2014.5~10
기타	교내 특강 시간 활용	2014.5~10
	피아노, 기타 연주 3곡 이상 연습	2014.6~11
	많은 음향기기를 들어보고 평을 써 보기	2014.4.30~12.30

이 달의 추천

나를 찾는 여행1

과정	기본과정
교육	1D: Dream the Future
선정자	5기 김소희, 박종덕, 최윤서

5기 김소희

▶ 내가 생각하는 기술기반 기업인



내가 생각하는 기술기반 기업인은 소니의 초대 회장인 아키오 모리타이다. 일본을 전자기기에서 선두적인 분야를 선점하고 있는 나라로 인식하게 만들었던 소니를 창업한 아키오 모리타는 그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던 워크맨, 테이프 레코더, 세계 최초형 트랜지스터 라디오 등 독창적인 기술로 제품을 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소니라는 회사의 이름을 드높였다. 이와 같이 뛰어난 기술로 상품을 제작하여 효과적으로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아키오 모리타는 본받을만한 기술기반 기업인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5기 최윤서

가치관

- 세상의 불평등과 부조리함해결이 우선
- 사람과 환경이 공존할 수있는 세계만들기
- 평생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 국제사회에 도움이 될수있는 사람되기
- 항상 약한 사람편에 서기

5기 박종덕

◎ 나의 흥미와 적성 탐색 결과

▶ 적 성 : 과학의 직·간접적인 기초지식과 경험 및 실험·관찰토의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학적인 원리와 개념을 빨리 이해하고, 여기에서 얻어진 결과물 등을 재할용품을 활용하여 직접 만들어 보고, 대중 앞에서 스스로없이 발표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며, 처음 접해 보는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빠른 적응과 응용할 수 있습니다.

※ 커리어넷(www.career.go.kr)을 통해 직업적성검사를 테스트 결과 -

- ▶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영역 - 손재능 : 손으로 만드는 일을 잘 해 다른 친구들보다 만들어 낸 결과물이 정교하거나 정확
- 공간지각능력 : 글로 쓰인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입체적으로 떠올려 공간 배치 및 공간 기원의 탁월한 능력과 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응용 추리능력 등 수리계열과 지각인식계열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이 높음
- 언어능력 :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잘 이해 말이나 글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등 언어계열에 전반적인 능력이 높음
- ▶ 적성 종합진단검사 결과 - 공학계열 (수학, 영어 과학전 분야 - 건축공학, 토목공학, 전자공학, 화학공학 등의 학과)



■ 신체운동능력 ■ 손재능 ■ 공간지각능력 ■ 음악능력
■ 창의력 ■ 언어능력 ■ 수리논리력 ■ 자기성찰능력
■ 대인관계능력 ■ 자연친화력

이 달의 추천

변하는 것 VS 변하지 않는 것

과정 기본과정

교육 1D: Dream the Future

선정자 5기 정효정

5기 정효정

제품 선정하기

- **펜** : 어떤 제품을 선정하면 좋을까 고민하다 결정한 제품이다. 학생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면서 옛날부터 많은 변천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제품이라고 생각된다.
- **전기밥솥** : 우리집 밥솥을 담당하고 있는 나에게 밥솥은 정말 인류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생각된다. 밥솥의 변천과정은 어떻게 거쳐졌는지 알고 싶어졌다.

변하는 것 vs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 글씨를 쓸 수 있다.
- 손에 짤 수 있는 형태이다.



[초기제품]



[중간제품]



[현재제품]

변하는 것

- 펜을 만드는 재료
- 펜을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펜의 성분이 다르다. Ex) 형광펜, 볼펜, 연필, 색연필 등
- 사용하기 편리해졌다. (잉크가 떨어지거나, 번지는 경우가 없음)
- 쉽게 구할 수 있다. (가격이 비싸지 않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음)

변하는 것 vs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 밥솥의 용도와 목적
- 밥을 지어준다.



[초기제품]



[중간제품]



[현재제품]

변하는 것

- 밥솥을 만드는 재료
- 밥솥의 역할(초기에는 짓기만 할 수 있었음. 중간에는 보온, 취사 각각의 역할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음. 현재는 보온과 취사가 동시에 가능하며, 여러종류의 밥(잡곡밥, 들술밥, 죽 등)을 할 수 있음)
- 밥을 짓는 방식이 달라짐(초기에는 불을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전기를 이용)
- 용도에 따라 크기가 다양하다. (1인용 전기밥솥, 식당용 전기밥솥 등..)

이 달의 추천

변하는 것 VS 변하지 않는 것

과정	기본과정
교육	1D: Dream the Future
선정자	5기 현용주, 최원준

5기 현용주

변하는것VS 변하지않는것

김해중학교 3학년 현용주

제품 찾아보기

우리가사용하는제품들로는휴대폰,다리미,컵,수저,가방,이어폰,냉장고,책,신발,옷,자전거,스피커,자동차,시계 등이 있다.

제품 선정하기

시계-역사책을 읽어보면 시간을 알게 되고 그것을 관리 하는 것 은 예부터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용가능 했으나, 이제는 모두가 쉽게 접한다. 그리고 더욱 정밀해졌다. 어떻게 그렇게 발달 했음에도 상용화가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선정하였다.

자동차-자동차는 이제는 우리 일상의 필수로 자리 잡은 지만 나온 초창기에는 지금과는 상상이 않될 정도로 달랐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것이 어떻게 다른지 다 바뀌었는지 알고 싶어서 선정했다.

변하는 것 VS 변하지 않는 것 (시계)

변하지 않는 것	시간을 알려준다.
	  
변하는 것	크기가 작아졌다. 대중화 되었다. 시간의 단위가 달라졌다.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들고 다닐 수도 있다.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좀 더 정확해 졌다. 다른 것과 합해져서 쓰이기도 한다. (예시: 휴대폰 시계, 카메라 시계)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들고 다닐 수도 있다.

※ 시계의 개발자나 시간의 단위가 없는 것은 포함하지 않음

5기 최원준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PCEO 최원준

제품 찾아보기

오늘 아침에 나는 알람시계를 끄고 일어나 안경을 쓰고 난 후에 샤워를 했다. 샤워를 한 후 아침을 먹고 자가용으로 강릉대 과학영재교육원에 가면서 책을 읽었다. 도착한 후 교수님을 기다리면서 태블릿 PC로 시간을 확인했다. 교수님이 들어오시자 나는 제발리 녹음기를 꺼내어 녹음을 시작했고, 컴퓨터와 연결되는 스크린을 보았다. 오전수업이 끝난 후, 나는 MP4로 음악을 들으며 친구와 함께 밥을 먹으러 갔다. 밥을 먹은 후 우리는 각자 계산대에서 계산을 했고, 오후수업도 들은 후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여 각자 집에 돌아갔다.

제품 선정하기

녹음기: 녹음의 역사도 꽤나 오래 되었고, 우리 주변의 녹음기들도 과거랑 어떻게 달랐는지 살펴볼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책: 과거의 책과 현재의 책, 즉 전자책이 어떤 단점과 장점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1. 녹음기

변하지 않는것.
녹음의 기능이 같다.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같다. 보편적 용도가 같다.



변하는 것
크기가 달라졌서 휴대성이 커졌다. 가격이 줄어들었다. 생산되는 물품의 개수가 많아졌다. 음질이 좋아졌다. 녹음 거리가 길어졌다. 노이즈 컷 기능이나 속도조절 기능처럼 기능이 많아졌다. 배터리식에서 충전식으로 바뀌었다.

이 달의 추천

기업과 비전1

과정	기본과정
교육	1D: Dream the Future
선정자	5기 박단비, 이정제, 최여림, 황희수, 양지수, 윤채은, 정희찬

오픈톡

5기 황희수

'나'라는 존재는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여 '나'라는 존재에게 말로 표현한다. 우리는 그렇게 체험하는 것들에서 언어라는 재료에 의해 생각이 지배당하거나, 그 도구에 의해 성장하기도 한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빅터와 로라는 그 언어라는 공간에서 진실이 감춰진 채 본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타인에 의해 상처받고 찢겨져 자신을 바로 볼 수가 없게 되고 생각이 멈춰버린다. 어쩌면 현실 상황이 이들 같다면 과연 이처럼 처참해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단지 객관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충고해 주거나 이성적이 생각만이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내게도 '선입견'이라는 언어공간에 눌러 선생님의 '기대치'라는 무게감이 짓누른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방법 하나는 청소년기의 나를 이유로 해답을 찾고 스스로 최면을 건다. 어른들은 원래 청소년기는 자기중심적이고 깊고 깊은 절망감을 체험하는 때라는 표현을 쓰는데 난 거기에 맞게 남을 의식하기보다 이기적으로 나에게 대해 열중하고 성찰하며 우물 안에서 튀어 오르려고 노력하는 개구리라 다독인다. 또한 지금 이 글을 쓰는 나는 우물 밖 세상에 나가기 위해, 도전을 배우기 위해 이곳을 택했고 나를 키우려한다. 만약 내가 빅터와 로라에게 들려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시크릿'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온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원하는 대상을 집중하여 생각하고, 그 대상이 어떠한가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주에서 가장 커다란 법칙인 끌어당김의 법칙이 발동된다. 당신은 자신이 가장 많이 되고 싶어 하는 존재가 되고,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즉,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것. 이 책의 주인공 빅터와 로라는 성공한 사람들의 지나온 일화의 형태이었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자화상 일수도 있고 그들과 같은 사람을 힘들게 했던 가해자 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주변과 나를 생각할 때 여지가 된다는 것도 배움의 또 다른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5기 최여림

'나'에 대한 인식 충돌이 있었던 적이 있는가? 있다. 누구의 말을 따랐는가? 부끄럽지만 나는 타인의 말을 따라왔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기록해 보고 싶다. 최근 몇 년 동안, 체육시간이 되면 힘이 빠진다. 체육이라는 과목에서 흥미를 잃고 있고 운동장에 나가는 것도 귀찮다. 이런 나는 사실 어렸을 때, 골프, 승마 등 다양한 스포츠를 접한 바가 있으며 선수활동을 하도록 권유받은 적이 상당히 많았었다. 그런 권유들에, 나를 둘러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숨에 반대하였고,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학문의 길을 닦으라고 하

였다. 체육뿐만이 아닌 미술, 음악 등에도 똑같은 사건들이 번번이 일어났다. '수용'이라는 나의 선택에 후회하는가? 그렇지 않다. 나는 그 당시에 나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내가 진정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도 알지 못했다. 본질적 자아를 찾지 못한 내가, 경험이 더 많은 어른들의 말을 따르는 것은 지당히 옳은 일이었다고 판단된다. (중략)

5기 이정제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빅터와 로라처럼 세상을 피하며 체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믿는 순간 그 두려움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두려움 대신 마침내 자신을 믿고 도전한 빅터와 로라가 새로운 삶과 행복을 찾았듯이 나 또한 앞으로 어떠한 두려움이 닥치더라도 나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싸 옮기내어 도전하여 진정한 나의 꿈을 실현하고자 한다. 부모님께서 바라는 나는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의사나 과학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미래의 내 모습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계신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고 어떻게 나의 꿈을 찾아갈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 그리고 혹시라도 부모님 바람에 못 미치거나 실패하게 될지 않을까 두려움도 있다. 이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나의 꿈을 찾아 어떠한 방법으로 꿈을 이룰지에 대해 나를 진단하고 외부의 도움도 받으며 그리고 자기성찰을 통해 꿈을 정하고 계획 후 이를 실현할 것이다.(중략)

5기 박단비

'바보 빅터'를 하여금 진정한 '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첫 번째 주제인 "외부에서 바라는 나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나를 비교해 보고, 만약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진정한 '나'가 되기 위해 겪었던 첫번째 성장통을 나의 기억 속에서 지금의 나의 관점앞에 살포시 꺼내주었다. 지금의 관점앞에서 생각하는 진정한 '나'가 되는 성장통을 다시 써나가고자 한다. 외부에서 바라는 나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나는 다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나'는 나에게 대한 객관적 시각이 되어준다. 그런 객관적 시각과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나에게 대한 생각이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나'가 탄생할 수 있다. (중략)

오픈마인드

5기 이정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페이지 하나하나 넘기는 과정이 정말 저에

겐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고 느껴요. 정말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책을 읽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모든 페이지를 넘기고 나서 다시 머릿속을 정리해보니 새로운 생각으로 가득찬 사람이 된 기분이라랄까 ㅋㅋ 정말 중요한 것들을 느꼈을 뿐더러 새로운 가치관도 만들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ㅎㅎ

5기 양지수

필력이 정말 좋으신 것 같습니다. '시크릿'의 말을 인용하신 문구가 특히 인상 깊어요. 인력의 법칙을 이렇게 사람의 심리에도 정확히 적용해서 우리가 흔히 느끼는 현상을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 매우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문장들이 정말 기억에 남네요. 자기 성찰의 여정이 배움의 또 다른 기회. 저는 제가 항상 가해자가 되지는 않았는지, 실수를 하지는 않았는지 의식하며 살려고 노력해요. 그 과정에서 충고를 믿어 보기도 하고, 일기를 써 보기도 하는데 결론은 다 똑같이 무언가를 '배운다'. (중2병스러운 수 있지만) 스스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철학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제 스스로의 도덕 법칙을 생각해 내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5기 윤채은

'심지어 우리조차 아직 우리의 가치를 모른다'는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포스텍영재기업인교육원에 선발이 되어 들어온 저도 제 가치를 잘 모르고 있다는 느낌을 들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공유하며 작은 응원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5기 정희찬

이 이야기는 어쩌보면 멀지 않은 곳 바로 우리들의 교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로 상대적 박탈감을 겪는 친구들이 자신의 목표를 상실하고 의욕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 어쩌면 우리모두가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봐주는 지혜, 튀는 모습은 개성으로 인정해 주는 자세를 가진다면 이 사회가 더 행복해 질 것 같습니다.

이 달의 추천

관심분야 정하기

과정 심화

교육 A 과정

선정자 3기 손영락, 유병호

3기 유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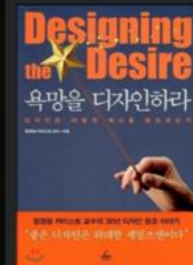
관심분야 자료소개

관련분야	데이터베이스, 양자역학, 생명공학
자료명	구글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용 요약	현대 사회에서 데이터를 제대로 이용하려면 이러한 데이터들을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가 아니라 이들과 연관된 수많은 데이터들과 연관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미 많은 정보 기술들이 데이터 개별 관리 뿐만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를 연관 짓고 네트워크화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데이터 관리와 접속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향 예측 및 도시 도로망 구축과 같은 거대 시스템에 있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네트워크의 속성을 이용하여 발전되고 있는 분야가 생명 정보학이다. 현재 인간의 게놈 지도가 완성되었지만 이들 유전정보를 발현할 수 있게 해주는 단백질간의 네트워크 관계가 규명이 되지 않아 맞춤형 의학, 암 진단과 같은 게놈 프로젝트로 인해 기대되었던 효과들이 현실 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단백질간의 상관관계, 뿐만 아니라 체내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화학 반응을 예측하면 인류의 의학 기술은 굉장히 크게 진보할 것이다. 데이터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알차 역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암호화 기술에서 양자를 이용하는 것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자신에게 준 의미	나에게 '네트워크'가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라는 것은 정보의 분산을 파악하거나 어떤 정보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수단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해 낼 수 있다는 것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조금 만 더 연구하면 네트워크와 IT 그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내 관심분야에서 굉장한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고 네트워크 그 자체가 아닌 네트워크와 다른 분야를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관심분야 자료소개

관련분야	항공 안전 기술, 공항 시스템 기술
자료명	도쿄 컨트롤
내용 요약	일본의 항공을 비행하는 항공기들의 교통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도쿄 컨트롤 센터의 관제사들은 갑자기 러시아로 부터 발생한 미사일로 인해 전 공역이 위험해지자 공역을 비우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실시한다. 결국 성공적으로 공역을 비우는데 성공하지만 이따금 관제사들의 행정 등 현안을 알 수 없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이에 관내에 배치되었던 최대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초치한 덕분에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후 중층 남지 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전 공역을 비우는 과정이 마무리 되면서 이따금 발생한 사고의 배후에 러시아 미사일 발사로 격추된 일본 자위대 소속 항공기 조종사의 손칙을 일본 정부에서 외교관계 및 이해관계에 따라 일단 일로 하면서 일부 자위대 소속 조종사들의 일본 정부에 대한 복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후 다시 아무 일 없던 듯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자신에게 준 의미	그 동안 항공에 관심이 있었던 나로서 항공과 관련된 드라마를 본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 일이었지만 무엇보다 나에게 항공 관제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 알게 된 기쁨이었다. 그 동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항공 계통의 직업은 조종사와 승무원에 국한되어 있었다. 나름대로 항공에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들과는 비행 기를 띄우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고 관제사의 업무에 대해서도 나름 잘 이해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 역시 조종사라는 직업이 더 알려진 만큼 지난 기보과정에서도 그렇고 조종사의 편익을 중대시키는데 실패를 두었다. 하지만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 관제사가 얼마나 힘든지, 또 관제사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으며 항공 관제사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3기 손영락



관련분야 디자인

자료명 디자인의 디자인(도서)

내용요약 일본의 디자이너 켄야 하라가 자신이 했던 디자인활동들에 대해서 쓴 책이다.

의미 이 책 앞부분에는 디자이너가 아닌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켄야 하라가 준 디자인미션을 수행한 결과물들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3번째 과제에 쓸 아이디어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관련분야 산업디자인

자료명 욕망을 디자인하라(도서)

내용요약 카이스트 산업디자인과의 정명원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다. 현대사회에서 디자인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다양한 흥미로운 예시들을 통해 표현해서 재미있었다.

의미 사실 내가 산업디자인이라는 관심분야를 갖게 된 출발이 카이스트 산업디자인과를 방문하고 나서이다. 그 교수님이 쓰신 책이라서 더 관심이 갔다.

관련분야 산업디자인

자료명 조너선 아이브(전기)

내용요약 애플의 산업디자인자 조너선 아이브의 일생을 담은 전기다.

의미 정말 대단한 사람이란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단한사람인지 알게 해준 책이다. 읽으면서 마치 내가 조너선아이브가 된 양 그 제품을 디자인하며 했던 생각들을 같이 해보며 즐겁게 읽었다. 덕분에 디자인에 대한 생각의 깊이가 깊어진 듯 하다.

추천 자료

생로병사의 비밀

영상 바로가기

http://www.kbs.co.kr/1tv/sisa/health/view/vod/2242746_941.html



교육생 여러분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 있나요? 이 프로그램이 500회를 맞이해서 우리나라를 빛낸 의사들을 소개하였습니다. 3부작 모두 방영되었으니 KBS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기술이나 기업가와와는 다소 동떨어질 수도 있지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속해서 실력을 쌓아나가는 모습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빛내고 있는 위대한 의사들이 어떤 활약을 하고 있는지 꼭 한 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른쪽 글은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앞으로도 POSTECH CEO REVIEW를 통해 우리 교육생들이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500회 맞은 스테디셀러의 내용은 이런 것

매주 수요일 밤 10시, 지상파 삼사 드라마의 시청률 경쟁을 꾸준히 위협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드디어 500회를 맞이한 <생로병사의 비밀>이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로병사의 비밀>은 말 그대로 우리 건강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룬다. 최첨단의 의학에서부터 대안 의학, 건강식, 생활 습관까지 그 어느 분야를 가리지 않고, 2002년 10월 29일 이래 2014년 500회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달려왔다. 더구나 인구 중 중노년층의 절대적 비중 증가와 함께 <생로병사의 비밀>은 그 가치를 더해왔다. 종편을 비롯한 각종 건강 상식 프로그램들처럼, 건강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하는 세대들에게 <생로병사의 비밀>은 건강 지킴이로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식을 전달한다.

500회를 맞이한 <생로병사의 비밀>이 3부작의 특징을 마련했다. <코리안 닥터스, 생존의 한계에 도전한다>가 그것이다. 그 중 1,2부는 배우 송일국이 내레이션으로 참여한 <세계의 중심에 서다>와 <메디컬 로드를 열다>이다. 여기서는 서양의학이 도입될 당시만 해도 의료 후진국이었지만 이제는 세계 의학계에 어깨를 겨루다 못해 의학 한류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나라의 학계의 성과를 다룬다.

1955년 당시 그 자신이 심낭염을 알았지만, 우리나라에선 수술할 길이 없어 바다 건너 일본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했던 소년이 이제 세계 최초 4000회의 간이식 수술의 기록을 세운 의사 이승규가 된 사연에서부터, 베이브 루스가 살아있었다더라면 그를 고쳤을 후두암의 권위자 홍완기, 가슴을 절제하지 않고도 유방암 수술을 하는 방법을 개발해 낸 노동영까지 '코리아 닥터스 자문위원회'에서 선발된 세계 의학 지도를 바꾼 3인의 의사가 1부에서 소개된다.

3부작으로 된 500회 특징은 <생로병사의 비밀>에 어울리는, 그 비밀을 풀 열쇠를 찾기에 노력하는, 그리고 그 성과를 이루어내는 우리 의학계의 성취를 다방면에서 다루고 있다. 그 어떤 화려한 잔치보다도 프로그램의 정체성에 걸맞은 특징으로 스테디셀러로서의 <생로병사의 비밀>의 내용을 보여준 것이다.

{ 미디어스, 2014.05.08 }

POSTECH

YOUR DREAM IS OUR FUTURE

CREATIVE ENTREPRENEUR OMPHALOS